

문장 구조(어순)와 의식 구조 사이의 상관관계: 한국어와 영어 비교 연구

김영국

차 례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한국어와 영어의 담화 구조와 문장 구조
- IV. 결론

I. 서론

ESL/EFL¹⁾ 교사들은 영어를 제 2언어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영어로 쓴 글에서 글의 구조와 관련된 어떤 문제점들을 발견하였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연구한 Kaplan(1966)은 수사 대조학(contrastive rhetoric) 개념을 도입하여 그 문제점들 중 몇 가지를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그에 따르면 각 언어는 자신만의 독특한 담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언어 습득이란 바로 그 언어의 담화 구조의 독특한 논리체계를 습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는 그 언어가 속해 있는 문화의 의식 구조와 생활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Kaplan의 견해²⁾에 동의하면서, 한국어의 담화 구조 뿐 아니라 통사적인 문장구조 속에 한국인의 문화 의식 구조와 글쓰기 구조의 특징이 나타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한국어는 영어에 비해 문장 구조가 애매모호함을 보여준다. 즉, 주어와 자주

1) English as a Second Language/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2) 물론 Kaplan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들이 있다. Leki(2000)이나 Raimes(1998) 등은 언어구조에 따라 문화나 의식 구조가 결정된다는 생각, 혹은 그 반대로 그 문화 사회 구조 때문에 언어나 글쓰기의 구조가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에 대해 아주 비판적이다.

생략되거나 주어의 위치가 어딘가에 애매한 경우가 많다. 한국어의 담화 구조도 역시 글의 주장이나 핵심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글의 주장을 빙빙 돌려서 말한다. 즉, 한국어의 담화 구조는 애매모호함의 측면에서 한국어의 문장의 구조와 닮아있다. 반면에 영어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³⁾에도 주어의 생략되지 않는다. 그리고 담화의 구조도 글쓴이의 주장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처럼 각 언어의 문장 구조는 각 언어의 담화의 구조와 닮아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언어의 문장 구조 안에 그 언어의 글쓰기 구조, 즉 담화의 구조와 동일한 특성이 들어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먼저 본 연구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수사 대조학의 간단한 개념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한국어의 예들을 살펴보면서 Kaplan의 주장이 한국어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장은 결론이다.

II. 이론적 배경

모국어 화자가 쓴 텍스트의 구조는 그 모국어 화자가 속해 있는 문화 구조에 따른 독특한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는 견해⁴⁾들이 있다. 이러한 견해에 동조하면서, 담화의 구조, 특히 글쓰기 구조를 연구하는 분야를 대조 수사학(contrastive rhetoric)이라 부르는데, Kaplan(1966)이 이러한 견해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글의 논점을 먼저 제시하고 글을 직선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아랍어권의 사용자들은 다양한 접속사를 많이 사용하여 병렬적으로 논점을 뒷받침하는 방식 즉, 지그재그 방식으로 자기주장을 전개시켜 나가고, 동양어권의 언어 사용자들은 논점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즉 나선형 방식으로 제시하며⁵⁾, 로망스어나 러시아어 사용자들은 관계가 없거나 지엽적인 예를 사

3) 명령문의 경우에는 주어의 생략된다.

4) Sapir(1949)와 von Humboldt(1836)는 문화가 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고, 역시 언어가 우리 사고나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5) 일본어의 경우도 글쓰기 구조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독자에게는 주제에서 벗어난 전개라고 여겨지며, 결론에서도 논점을 확실하게 제시하지 않고 의문의 여지를 남기

용하면서 글을 전개시키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한다. 이후, 대조수사학은 교차 언어 분석과 영어교육 분야에서 점차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발전하여왔다. 대조수사학 연구자들은 언어 간 텍스트 비교 분석을 통해 텍스트의 수사구조를 연구하는데, 텍스트들 사이의 수사구조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한 연구 결과는 ESL/EFL의 독해지도와 작문지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Ⅲ. 한국어와 영어의 담화 구조와 문장 구조

1. 주어 생략, 관형질의 위치, 관사의 위치

한국어의 경우 문화적으로 주어, 즉 술어가 지금 누구 또는 무엇에 대해 설명하는지 술어의 설명대상(술어의 주체)을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대조 수사학에서는 한국어나 일본어의 담화 구조가 나선형의 구조⁶⁾를 가졌기 때문

기도 하는 방식으로 글을 맺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면에서 일본어와 한국어는 비슷한 글쓰기의 담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인다. Choi(1988)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ESL 학습자들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필자들의 글에 비해서는 글을 순환적 즉 나선형 구조로 전개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6) 왜 한국어나 일본어는 나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는 대화의 격률(maxims of conversation, 자세한 논의는 아래 3.4 참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본 논문에서는 대화(담화)의 격률에 '겸양'과 '명확성'(Sperber and Wilson, 1995)이 있다고 간주된다. 한국어나 일본어는 이 두 가지 '겸양'과 '명확성' 격률 중에서 '겸양'이 우선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 '겸양'의 격률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가 담화(글)의 구조를 나선형 구조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언어에서 '겸양'이라는 규칙이 담화적(통사적)으로 표현됨을 이론적으로 최초로 규명한 이는 Lakoff(1973)이다. 그에 따르면 rules of politeness(겸양의 규칙)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i) Formality(Distance) : Do not impose on others; be sufficiently aloof.
- (ii) Hesitancy(deference): Allow the addressee options about whether or not to respond and about how to respond.
- (iii) Equality(Camaraderie): Act as if you and the addressee are equal; make the addressee feel good.

이세가지 중에서 형식성(formality)이 겸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공손해지고 겸양을 높일수록 담화(글)나 대화는 형식적이 된다. 이러한 글의 형식화를 높이는 방법

이라고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담화의 구조가 문장 안에도 통사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아래 문장을 한 번 살펴보자.

(1) 어제 철수하고 밥을 먹었는데 너무나 분위기가 썰렁하였다.
식사 후에 택시를 잡아타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 후에 바로 침대에
쓰러졌다. 오늘은 너무나 피곤한 날이다. 영희는 침대에 눕자마자
바로 꿈나라로 직행하였다.

위 예문에서 보이듯이 한국어의 화자들은 문장 안에서 술어들이 설명하고 자 하는 주제 혹은 주어를 생략하는 경향이 강하다. 위 글의 첫 번째 문장에는 주어(주체)가 통사적으로 나타나있지 않다. 즉, ‘어제 철수하고 밥을 먹었는데’라는 술어의 주어(주체)가 표시 되어있지 않다. 누가 철수하고 밥을 먹었는지 문장 안에서 주어가 없다. 두 번째 문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가 없다. 누가 택시를 잡아탔는지, 누가 집에 들어갔는지, 누가 침대에 쓰러졌는지 그 주체가 나와 있지 않다. 그래도 그 문장들이나 전체적인 담화는 한국어 통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즉 모든 문장들이 정문이다. 영어의 문장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 명령문은 제외) 문법주어를 생략하지 않는 반면 한국어는 문장 내 문법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이처럼 자주 나타난다. 이는 한국어 화자들이 담화 상에서 자기의 주장을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드러내기를 꺼려하듯이, 문장 안에서도 자기주장을 감추려는 경향이 주어생략을 통해 반영된 것이다. 술어가 설명하고 있는 대상(주어, 주체)을 숨기는 방법 즉, 주어 생략을 통해 문장의 주체를 모호하게 만들고 지금 무엇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지 독자가 명백하게 파악을 하는데 어려움⁷⁾을 갖게 만든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한 문장의 주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문장 자체보다는 담화 전체를 보아야 하고, 그 담화 구조 속에서 각 문장의 주어나 주체를 찾아야 한다. 위 예문에서도 첫 번째와 두 번

중 하나로 한국어와 같은 언어는 담화 구조를 나선형으로 만드는 것 같다.

7) 따라서 혹자는 한국어 담화는 통일성(coherence)이 약하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담화 자체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글들 사이에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것이다. Coherence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Renkema(2004)을 보라.

째 문장의 주어는 그 담화의 제일 마지막 문장에 가서야 찾을 수 있다. 제일 마지막 문장에서 밑줄 친 영희가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의 주어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의 주어가 영희임을 담화 끝에 가서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어에서는 주어를 담화 전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하는 방식을 자주 사용한다.

다음은 일인칭 형식의 한국어와 영어 수필이다. 한국어의 경우는 담화 상에서 주어 생략이 자주 일어나고, 영어의 경우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지하철을 타고서 친구네 집을 찾아가는 중이었다. 친구 얼굴을 그리며 앉아 있는데, 내 옆으로 아주머니와 그분의 아들인 듯한 유치원생 아이가 앉았다. 평소에도 시끄럽고 귀찮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던 나로서는 옆에 앉은 아이가 그리 반갑지만은 않았다.

어린 남자아이는 내가 가지고 있던 과일 노트를 쳐다보다가는 자꾸 만지고 열어 보려고 하였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그냥 아이가 하는 대로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뭐야, 짜증 나게. 이 아이 때문에 사람들도 다 이쪽을 쳐다보잖아. 저 아줌마는 왜 아들이 하는 대로 지켜만 보고 있지?’ 하며 부아가 나 있었다. 그 아이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이 싫어 속으로만 투덜거렸다. 그 아이에게 쏠리는 신경을 풀기 위해, 가방에서 시디플레이어를 꺼내어 귀에 이어폰을 끼고는 소리를 키우고서 음악에 열중하려 했다. 그러나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옆에 앉아 있던 그 남자아이가 이번에는 자꾸 모자를 ‘썼다, 벗었다’를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내 모든 시선은 아이와 아이의 엄마에게로 향하게 되었다. 안에 시디플레이어의 이어폰까지 빼 버리고서 아이와 엄마를 바라보았다. 가만히 보고 있으니 아이가 혼자서 모자를 ‘썼다, 벗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는 자꾸 모자를 벗으려 하고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벗은 모자를 또다시 씌우려 하는 중이었다. 엄마와 아들이 모자 하나를 가지고 왜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중략)...

아이 엄마는 아이의 말에 “알았어.”라고 대답을 했고, 지하철 안은 이내 조용해졌다. 그리고 나서 아이는 계속 내 파일 노트를 만지작거렸는데 아까와 달리 짜증이 나지 않았다. 줄곧 아이가 한 말을 되새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보다 아이의 말이 나에게 더 깊숙이 다가왔으나 보다. 아까는 그렇게 신경 쓰이던 아이의 행동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나는 창피하지 않은데 엄마는 애 그래!’ 아이의 진심 어린 그 말이 나의 가슴에 다가왔다. 나는 그 아이와 달리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마다 속으로 ‘사람들이 내 다리를 쳐다보며 흉터가 많고 흉보고 있진 않을까?’하며 괜히 혼자 신경 쓰고 있었던 것이다. 오히려 그런 내 마음이 내 스스로를 창피하게 만드는 것이란 생각은 못한 채 말이다.

... (중략)...

자기 자신에게 당당하고 떳떳해지면 자신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알게 될 것이다.

아이와의 만남은 처음엔 ‘짜증’이었지만 나중엔 ‘배움’이 되었다.” (임숙현, 2005)

“**I** returned to the square, keen to finish my task and leave. **I** took a left out of the main square and then a right, and soon found the house **I** was looking for; a large modern building of oak-framed construction. **The front door** was locked, so **I** climbed in a broken window and fumbled my way to the kitchen, found the stat-crank and gave it ten or twenty turns. **I** then dialed in the time, date and year to manually reset the mirror. **There** was a buzzing from the roof, and a moment later **light** burst upon the interior of the house. **I** could see then that **this** was the dwelling of a well-to-do merchant, although **art custodianship** wasn't hue-dependent; **you** would be as likely to find a Caravaggio or a Williams in the home of a Grey as you

would a Purple. I unbolted the front door to allow easy escape in case of a nesting swan or something, then walked into the kitchen.” (FFORDE. 2009)

위 한국어 수필에서 밑줄 친 부분들이 문법적 주어가 없이 사용된 예이다. 한국어에서는 주어가 없는 문장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 영어의 예에서는 각 문장의 문법적 주어에 밑줄을 쳤는데, 주어가 없는 문장이 하나도 없다. 반면 한국어의 경우는 문장 내에서 주어를 생략하는 현상이 아주 흔하다. 이를 주어생략(pro-drop⁸⁾)현상이라 한다. 통사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주어 생략 현상이라 하지만 담화측면에서는 이를 주어 혹은 주제 감추기 현상이라 하겠다. 즉, 문장 안에서 문법적 장치⁹⁾(주어 생략)를 통해 주어 혹은 주제를 감추고 담화 속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논점을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제시하는 한국어의 나선형 담화구조가 문장구조에도 나타난 것으로

8) 영어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단 명령문은 제외) 주어가 생략될 수가 없다. 반면에 로망스계 언어(이태리어, 스페인어)등에서는 문장 안에서 주어가 종종 생략되어 나타나도 정문이다. 이를 주어 생략(pro-drop)현상이라 한다. 먼저 이태리어의 경우를 살펴보자.

(i) Giacomo ha detto [che e(pro) ha parlato].
Giacomo has said that has spoken

여기서 e(pro) 가 바로 주어생략(pro-drop)로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영주어(null-subject)이다. 이렇게 문장 안에서 주어가 없어도 즉,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아도 정문이다. 한국어도 역시 이렇게 주어를 문장 내에서 실현시키지 않아도 정문이다.

(ii) A: 밥 먹었어?
B: 응, 그래.
A: 영수는 만났어?
B: 아니, 오늘 학교에 안 왔어.

이러한 주어생략(pro-drop) 현상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Rizzi(1986), Borer(1986), Huang (1984)을 참조하라.

9) 아랍어의 경우에는 문법적으로 ‘주부+술부’의 어순이 영어와 다르다(Johnstone, 2008). 영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부+술부’의 순서이지만, 아랍어는 ‘술부+주어’의 순서이다. 아랍어의 경우에도 설명이 먼저 나오면서 맨 나중에 그 술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주어(주제)가 나온다. 이러한 통사적 장치(어순)에 의해 담화 구조가 영향을 받는다.

볼 수 있다. 이렇듯이 문장 안에서도 문법적 장치(주어 생략)를 통해 한국어의 담화 구조와 한국인의 의식 구조¹⁰⁾가 드러난다.

2. 한국어의 관형절의 위치

한국어의 나선형 담화 구조나 자신의 주장을 모호하게 전달하려는 한국인의 의식 구조는 주어 생략이라는 방법 말고도 관계절(관형절)과 선행사의 순서라는 문법 장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한국어의 경우 선행사(설명 대상, 즉 머리어(head noun))를 관계절(관형절, 즉 선행사에 대해 설명하는 술어와 같은 역할) 뒤에 배치한다. 그 결과 긴 설명 후에 그 설명대상인 선행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 때문에 청자는 앞에서 오랫동안 설명을 들으면서(보면서)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설명의 주제를 놓치게 된다. 그런 다음에 선행사(주어, 주제)를 제시하면 정작 제일 중요한 선행사의 정체(identity)를 놓치거나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경향이 많이 발생한다. 영어의 경우는 반대로 먼저 선행사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설명(관계절)을 제시한다. 즉 화자(글쓴이)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 하는지 직접적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뒤에 설명이 따라온다. 영어는 주어나 주제가 반드시 먼저 보여야 되고, 선행사도 관계절보다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각 언어의 담화 구조나 의식 구조와도 너무나 닮아있다. 담화 구조 측면에서 보자면 영어는 담화의 전체 주장(주제)을 직접적으로 바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온다. 문장 측면에서도 보면 영어의 경우 모든 문장이 주어(주어)를 문두에 놓는다. 그래서 청자(독자)가 그 문장의 주어(주어)가 무엇인지를 제일 먼저 파악하게 된다.

(2) a. [철수가 어제 공원에서 만난] 여자는 미국인이다.

b. The lady [whom Cheolsu met in the park yesterday]
is an American.

10) 한국인 화자(독자)는 자기주장을 감추거나 모호하게 하여 청자(독자)에게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피하면서 ‘겸양’이라는 격률을 명확성이라는 격률에 우선하는 경향(의식)을 가지고 있다.

위 예문에서 보듯이 영어의 경우 선행사가 항상 관계절보다 앞에 나온다. 반면에 한국어의 경우는 항상 선행사(11)가 관계절 보다 뒤에 나온다. 이는 영어의 경우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토픽을 먼저 문두에 제시하고 그 후에 그 토픽(주제, 주어, 선행사)에 대해 설명을 해나가는 직접적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한국어는 설명을 먼저 하고 그 토픽은 나중에 제시하는 간접적 구조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각 언어의 담화 구조와 의식 구조가 문장 안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한국어의 관계절 구조는 주제를 가급적 빨리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피하고 천천히 그리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한국어의 담화 구조와 문화 의식 구조와 닮아 있다. 즉, 문장의 구조 안에 담화의 구조가 들어 있고 그 언어 문화권의 의식 구조도 녹아들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어 문장 구조는 주제(주어)를 생략하거나, 관계절의 머리어를 문장 제일 뒤(관계절의 경우)에 놓음으로서 글쓴이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피한다. 담화측면에서는 나선형 방식으로 자기주장을 빙빙 돌려서 말한다. 직접적 주장을 가급적 회피한다.

이렇게 지시어(referent) 혹은 선행사(antecedent) 혹은 머리어(head noun)를 제일 나중에 보여주고 설명을 먼저 함으로써 화자/작가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지를 모호하게 만드는 현상이 한국어 같은 언어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유가 문화적 배경뿐만 아니라 문장의 구조 때문이라는 것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통사적 이유를 어순과 관련하여 같은 논리로 설명 할 수가 있다. 통사적 입장에서 보면, 한국어는 머리나중(head-last¹²)언어이다. 즉

11) 그래서 한국어 관계절의 경우 '선행사'라는 용어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 관계절 후에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의상 영어의 용어인 '선행사'라는 말을 그대로 한국어에도 적용하여 사용하겠다.

12) 영어(ia) 와 같은 언어는 어떤 범주(category)의 머리(head($X^0 = V^0$ in (i)))가 왼쪽 끝에(leftmost) 오는 반면에, 한국어와 같은 경우 head가 오른쪽 끝에 온다. (Acc=accusative(목적격)) (Radford, 2009, pp. 273-8, 350, 368, 382, 504)

(i) a. [V^0 close] [NP^0 the door]
 b. [NP^0 moon-ul] [V^0 dateo-ra]
 door-Acc close

동사와 목적어가 나올 때 그 순서가 ‘목적어+동사’이다. 반면에 영어의 경우에는 머리처음(head-first) 언어이기 때문에 ‘동사+목적어’ 순서로 나온다. 또한 관형절을 포함한 명사구(Noun Phrase(NP))의 구조를 살펴보면 영어의 관계절의 경우는 머리어(head)에 해당하는 선행명사(antecedent NP)가 후행하는 관계절 앞에 먼저 오면서 설명하는 관계절이 선행사 다음에 오게 된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대로 영어의 경우 설명의 주제(토픽)가 명백하게 먼저 제시되고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어순 때문에 주제(토픽)의 명확성이 결정된다. 지시어(referent)가 설명보다 앞에 위치하면 설명의 주제(토픽)가 명확해지고, 반면에 지시어(referent)가 설명 보다 뒤에 오면 주제(토픽)가 모호해지는 것이다. 그 이유는 머리처음(head-first)인 언어의 관형절에서는 머리어(head noun)인 선행사(antecedent)가 먼저 제시되어 그것이 독자나 청자에게 자연스럽게 명확하게(clear) 나타나는 반면, 머리카중(head-last)인 언어의 경우에는 머리(head)에 해당하는 지시어(referent) 혹은 선행사(antecedent)가 제일 나중에 나타남으로 인해 그것이 독자나 청자에게 자연스럽게 모호(obscure)해진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어와 영어의 이러한 한국어와 영어의 통사적 현상이 각 언어권의 문화·의식구조와도 일치하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통사적 현상이 담화(discourse)에서도 잘 나타난다. 영어의 경우 가급적이면 글의 주장을 빨리 제시하고 설명이 뒤 따라 나오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에 한국어의 경우 글의 주장(주제)을 가능하면 글의 제일 뒤로 미루고 설명(배경)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제시한다. 다음의 예시 글들은 한국어와 영어

이것을 다음과 같이 형식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 (ii) a. XP-X'-X° YP* (영어의 경우)
 b. XP-X'-YP* X° (한국어의 경우) (*는 보어(complement)를 뜻한다.)

여기서 우리는 머리(head)가 먼저 오느냐 나중에 오느냐에 따라 언어 간에 변이(parametric variation)를 발견할 수가 있다. 따라서 영어와 같은 언어는 머리-처음(head-first) 언어라 하고 한국어와 같은 언어는 머리 나중(head-last) 언어라 한다. 영어의 경우 동사구(Verb Phrase)의 구조가 동사+명사(V+NP) 순서이면 무표적(unmarked) 이고, 명사 +동사(NP+V) 순서는 유표적(marked)이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된다(Parker and Riley, 2005).

각각의 이러한 담화상의 특징들을 잘 보여준다.

"아버님께,
아버지, 가정 내 두루 두루 편안 하시지요?
저도 염려 덕택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영희에게도 안부 전해 주십시오.
지난번 태풍에 옷 골에 있는 논과 밭은 무사한지요? 걱정이 됩
니다.
지난 편지에 할머니가 조금 편찮은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습니
까?
이번 방학 때는 꼭 내려가서 집안일을 돕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이렇게 펜을 든 것은 다름이 아니
라
이번 학기에 꼭 사서 봐야할 책이 있는데 값이 조금 나갑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책값을 조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더욱 열심히 해서 꼭 장학금 받도록 할게요.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할게요.

2008년 9월 20일
불효자 아들이 서울에서"13)

"Hi, Jane.
How's everything going?

13) 필자의 한 제자의 편지(글쓰기가 신원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아 표시하지 않음). 한국어에서는 설명이 앞부분에 나오고 그 주제가 나중에 나오는 경우가 무표(unmarked)이고, 오히려 글(대화)의 서두에 바로 글의 주제(글의 의도나 목적)가 바로 나오면 유표(marked)적인 경우이다. 영어의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된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한국어의 담화 구조도 영어의 영향을 받아 과거와는 달리 편지(글) 서두에 바로 글의 목적을 밝히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담화상 일반적(unmarked, 무표)으로 한국어에서 주제가 문미에 나온다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marked, 유표)도 있다. 즉, 급한 전보라든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국제 전화상에서는 아무리 한국 문화라도 대화나 글의 서두에 바로 본론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유표(marked)적인 경우이다.

I'm satisfied with my school life and my classmates.
But I've recently been in deep trouble.
I'm sending this e-mail to you get some advice from you.
The problem is that some of my close classmates point out
I'm too outgoing or aggressive.
I explained to them they were mistaken.
What do you think I am like?
Do I have a negative personality?

Your non-aggressive friend, John"¹⁴⁾

위의 한 전형적인 한국 사람의 편지의 예에서 보이듯이 한국 사람의 글에서는 말하고 싶은 주제(밑줄 친 문장)가 주로 글의 제일 끝에 배치된다. 반면에 영어의 글에서는 글의 주제(밑줄 친 문장)를 글 앞쪽에 배치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머리처음(head-first) 혹은 머рина중(head-last)의 언어 형태적 성질과 공교롭게도 잘 맞아떨어진다.

3. 한국어의 관사의 위치

한국어의 담화 구조나 의식 구조는 주어 생략, 관계절(관형절)과 선행사의 순서라는 문법 장치 외에도 관사의 위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문장 내 어순에 의해서 각 단어의 정보의 성질(중요도)이 달라진다. 한국어 관계절 중 제한적 관계절(restrictive relative clause)인 경우 관사가 관형절보다 먼저 나오거나 아예 생략되어 나온다¹⁵⁾. 이는 청자(독자)로 하여금 빨리 선행사의 아이덴티티를 찾는데 관계절이 참여하도록 관사가 도와주는 반면에, 계속적(non-

14) High School English II, 자습서, 2008. p. 28. 중앙교육 진흥 연구소.

15) 한국어에는 제한적 관계절, 계속적 관계절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두지는 않지만, (3a)와 (3b)의 예문이 존재하고 그 둘 사이에 의미(취앙스)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필자는 한국어의 관계절에도 제한적, 계속적 관계절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자세한 논의는 Kim(1997)을 참조하라.

restrictive or appositive relative clauses) 관계절¹⁶⁾의 경우는 관사를 관계절 뒤에 놓음으로써 관계절(관형절)의 정보의 중요도나 그에 대한 관심도를 떨어뜨려 정보가 흐려지게 하고, 그에 따라 선행사의 아이덴티티를 찾는데 관계절의 역할이 약화된다. 여기서 관사가 관계절(관형절) 보다 앞에 나오느냐 아니면 보다 늦게 나오느냐가 선행사의 아이덴티티 결정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선행사의 아이덴티티를 빨리 직접적으로 독자에게 알려 주고 싶을 때에는 관사 ‘그’를 관계절 앞에 놓고, 그렇지 않고 이미 선행사의 아이덴티티가 정해져 있어 관계절의 정보가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사를 관형절 뒤에 보내 선행사의 아이덴티티를 가급적 나중에 밝힌다. 다음 문장들을 살펴보자.

- (3) a. 그 얼굴이 예쁜 여자
- b. 얼굴이 예쁜 그 여자
- (4) a. The lady who is pretty
- b. The lady, who is pretty

영어의 경우 제한적 관계절이든 계속적 관계절이든 선행사와 관계절의 관계가 통사적으로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단지 콤마에 의해 표시될 뿐이다. 콤

16) 관계절의 경우는 제한적 관계절과 계속적 관계절로 나눈다. 이 두 가지 관계절은 영어나 한국어나 다음과 같은 의미적 차이점이 있다.

- (i) a. (그) 아주 근면한 중국인들
- b. 아주 근면한 (그) 중국인들
- (ii) a. The Chinese who is very industrious
- b. The Chinese, who is very industrious

위 예문에서 (i)a와 (ii)a는 제한적 관계절의 예이고, (i)b와 (ii)b는 계속적 관계절이다. 이 둘의 통사적 차이점은, 한국어의 경우 관사 ‘그’가 관계절 앞에 오면 제한적 용법이고, 관계절 뒤에 오면 계속적 용법이다. 영어의 경우 선행사 다음에 콤마(,)가 없이 바로 관계절이 오면 제한적 관계절이고, 선행사 다음에 콤마(,)가 바로 나오면 이는 계속적 관계절이다. 의미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어나 영어에 경우 차이점이 없이 다음과 같다. 제한적 관계절의 경우 선행사의 아이덴티티가 선행사를 수식하는 관계절에 의해 결정된다. 반면에 계속적 관계절의 경우 선행사의 아이덴티티는 수식하는 관계절과 상관없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단지 관계절은 부가적으로 그 결정된 선행사의 정보를 덧붙여 주는 정도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Bowers(1974)와 Kim(1997)을 참조하라.

마가 있으면 계속적 관계절이고, 콤마가 없으면 제한적 관계절이다. 어떤 경우든 선행사가 관계절 앞에 나온다. 반면에 한국어의 경우 관사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제한적 관계절의 경우인 (4a)에서는 관사 ‘그’가 관계절(관형절) 앞에 오지만, 계속적 관계절인 (4b)에서는 관사 ‘그’가 관계절 뒤에 나온다. 한국어의 경우 관사의 위치에 따라 선행사의 아이덴티티가 밝혀지는 시간이 결정된다. 그리고 사실상 한국어의 관형절의 경우 관사를 관형절 앞에 두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대부분 관형절 뒤에 배치한다. 아니면 아예 관사를 두지 않아 선행사의 아이덴티티를 흐리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 이 문장이 제한적 표현인지 계속적 표현인지 알 수가 없다. 즉, 한국어의 관계절에서는 관사가 관계절 뒤에 오는 경우 관계절의 정보가 약화되어 나선형방식의 문장 구조를 만든다. 반면에 관사를 관형절 앞에 두게 되면 관형절의 정보가 뒤에 오는 선행사의 아이덴티티를 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나선형의 구조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어 화자들은 일반적으로 (3a)의 구조 보다는 (3b)의 구조를 선호한다. 아니면 아예 선행사의 아이덴티티를 흐리게 하기위해 관사를 생략해 버린다. 사실 관사 생략이 가장 많은 경우일 것이다. 이는 한국어의 담화 구조가 나선형으로 글의 주제를 모호하게 하는 경향과 일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어의 관계절의 경우 관사가 관형절 뒤에 위치하거나 아니면 아예 생략하는 경우를 선호하는데, 이는 한국인의 담화 구조 방식(나선형, 간접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의 경우는 관사와 선행사가 항상 관계절 보다 앞에 나와 아이덴티티가 일찍 결정된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선행사를 먼저 청자(독자)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관계절의 정보가 뒤따라 나온다. 이는 영어의 관계절의 경우 항상 화자는 청자에게 자기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주제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구조¹⁷⁾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7) 본 논문에서 필자는 글(대화, 담화)의 주제 혹은 화자의 주장이 글(담화, 대화)의 구조에서 어느 위치에 오는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말로 하면 주장(주제)이 글(담화, 대화)의 서두 쪽에 나오는가 아니면 글 말미에 오는가가 중요하다. 서두 쪽에 나오는 경향은 영어에서 보이고, 말미에 나오는 경향은 주로 한국어의 경우이다. 따라서 이(글 주제의 위치)를 담화 구조의 변이(parameter of discourse structure) 중 하나로 간주한다. 담화 구조의 변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Pike(1967)을 보라.

4. 한국어의 담화 속에 주제(topic)의 위치(position)와 위치의 기능(function)

문장에서 주어, 머리어(관계절의 경우) 또는 관사의 위치에 따라 그 의미전달의 기능이 달라지듯이 담화에서도 주제의 위치가 서두인지 문미인지에 따라 그 의미전달의 기능이 달라진다¹⁸⁾. 즉, 똑같은 담화의 내용이 그 구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담화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담화 내용의 주제(subject, topic) 혹은 주장을 담화의 서두에 두고 그 설명을 하느냐 아니면 설명을 하고 그 주제를 담화 끝 부분에 두느냐에 따라 그 담화 전체의 의미(화자의 강조점)가 다르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화자(글쓴이)는 자기주장(주제)을 가급적 직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담화 전체 내용의 주제를 명확히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청자(독자)가 오해(misunderstanding)없이 자기주장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 화자가 자기주장(글의 주제)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를 꺼린다. 청자에게 직접적으로 자기주장을 나타내는 것을 주저한다. 이 화자의 문화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례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담화의 구조가 통사적으로 문장의 구조에 들어 있다는 것이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어의 생략함으로써, 또는 관형절의 머리어의 확인(identification)을 미루거나 모호하게 함으로써 화자나 글쓴이의 주장이나 주제를 모호하게 한다. 그럼 왜 모호하게 하는 것일까? 담화(글)의 기능의 입장에서 보면, 담화(글)의 모호함이 어떤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담화 구조에서 그 담화(글)의 주제(topic)를 서두에 놓느냐 아니면 말미에 두느냐는 단순한 뉴앙스 차이가 아니라 의사소통의 한 기능(function)을 담당한다. 기능문법(functional grammar)에 따르면 화자가 어떤 특정한 문장의 구조를 선택하면 담화 속에서 그 화자가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고 전달하는지를

18) 언어에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없듯이, 문장의 어순이 다르면 아무리 같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다르기 마련이다. 영어 문장구조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같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수동태와 능동태는 화자가 전달하는 의미가 다르다. 예를 들어 "The accounting department made a mistake."와 "A mistake was made by the accounting department."의 문장은 서로 의미가 다르다. 능동태의 경우 강조되는 부분이 실수를 한 '부서(The accounting department)'에 있고, 수동태의 경우 강조되는 부분이 '실수(mistake)'에 있다(Johnstone, 2008).

반영한다고 한다(Halliday, 1994; Eggins, 2004; Thompson, 1994; Givon, 1979; Hooper and Traugott, 2003). 한국어의 경우 주제(주장)를 글의 말미에 두므로써 화자(글쓴이)는 겸양¹⁹⁾의 기능(function)을 수행한다. Grice(1975)에 따르면 화자와 청자는 대화를 할 때 대화의 격률(maxims)이라는 네 가지의 협동의 원칙(cooperative principle)을 지켜야한다. 즉, 질(quality), 양(quantity), 관련성(relevance), 태도(manner)의 네 가지 격률을 지키면서 대화를 해야지 만약에 이 원칙 중 하나라도 어기면 대화가 깨진다는 것이다. 이를 확장 발전시킨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 (Sperber and Wilson, 1995)에서는 관련성(relevance)을 확장하면서 관련성 (relevance) 아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격률이 명확성(explicature)²⁰⁾과 관련성(relevance)라고 한다. 이를 좀 더 확장해보면 대화의 격률에는 Grice의 네 가지 격률이나 Sperber와 Wilson의 명확성과 관련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외 여러 가지 격률이 있을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겸양의 격률이 있다고 본다. 모든 대화에는 반드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겸양'이라는 규칙을 지켜야한다. 이러한 개념은 이미 Goffman²¹⁾에 의해 주장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격률이 서로 충돌할 때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이다. 필자는 격률의 우선순위는 언어마다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영어권에서는 '명확성'이 '겸양'보다 우선하고, 한국어의 경우에는 '겸양'이 '명확성'보다 우선한다. 그렇다면 한국어에서는 겸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물론 일반적으로 단어²²⁾를 이용하여 겸양을 나타낸다. 이는 언어내적²³⁾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 겸양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 중 하나가

19) 익명의 심사위원이 지적한대로 여기서는 '공손성(politeness)'의 개념보다는 '겸양'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다시 한 번 '겸양'과 '공손성'의 개념 차이를 지적해주신 심사위원의 지적에 감사드린다.

20) 본 논문에서는 명확성(explicitness)라는 단어를 대신 사용한다.

21) 대화에는 겸양의 기능이 있다고 최초로 주장한 이는 Goffman(1956)이라는 사회심리학자이다. 그에 따르면 언어는 직접적(directly)으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보다 간접적(indirectly)으로 표현함으로써 겸양을 표현한다고 한다. 자기주장의 간접적 표현은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준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대화에서 간접적 표현이 대화를 부드럽게 유도한다고 한다.

22) 예를 들면, '아빠가'보다는 '아버님께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겸양이 더욱 잘 들어나는 표현이다.

23) 겸양을 나타내는 방법이 언어내적(morphological 혹은 syntactic)일 수도 있고, 화

대화에서 자기주장을 가급적 나중에 하는 것이라고 본다. 담화의 경우에는 담화(글)의 주장(주제)을 글의 문미에 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이 문장 안(통사적으로도)에서도 나타난다고 본다. 따라서 ‘겸양’을 우선하는 한국어의 경우, 문장 안에서 주어를 생략하거나 관형절의 경우 머리어를 제일 뒤에 위치시킨다. 게다가 한국어의 관형절의 경우 관사²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겸양의 정도를 더욱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온다. 관형절의 머리어나 담화(글)의 주장이나 주제를 모호하게 함으로서 청자로 하여금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장치는 글의 ‘명확성’을 떨어뜨린다. 도대체 화자가 무슨 말을 하려하는지 모호해 지기도 한다. 한국어 글들이 이러한 경우가 많다. 심지어 한국인이 쓴 영어 글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한국 사람들이 글을 쓸 때 혹은 대화를 할 때 ‘명확성’보다는 ‘겸양’에 더욱 신경을 쓴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더욱이 이런 겸양의 정도가 화자와 청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위치)에 따라 더욱 달라진다. 관계가 멀면 멀수록(혹은 청자가 화자보다 사회적 위치가 높을 때) 자기주장이 글의 끝에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 자기 요청이나 주장을 내 놓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대화나 글(담화)의 끝에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 또는 담화 끝에 자기주장을 내 놓더라도 자기주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이러한 현상²⁵⁾이 한국어

용론적(pragmatic)일 수도 있다. 단어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겸양을 나타내는 방법도 있고 혹은 문장의 형태를 이용하여 나타내는 방법도 있다. 즉, 문장의 형태(명령문의 형태를 의문문으로 표시하면서 요청을 하는 경우)를 이용하여 겸양을 나타내면 이는 통사적 방법이다. 반면에 담화 구조 안에서 글(자기)의 주장(주제)을 담화(대화) 속에서 말미에 두는 경우는 화용론적 방법이라 하겠다. 한국어의 겸양 표현중 하나인 담화 내에서 글의 주장을 글 말미에 두는 경우는 화용론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24) 관형사가 나타나면 머리어(head) 찾기(identification)를 더욱 명확하게 해준다. 이는 겸양의 관점에서 보면 관사가 있으면 글쓴이(화자)의 주장이 의도가 명확해진 반면, 겸양의 정도는 낮아진다고 보여 진다.
- 25) 비판적 담화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Renkema, 2004))의 분석에 따르면 모든 글이나 대화의 주제(의도)는 화자(글쓴이)와 청자(독자) 사이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글의 주장이 달라진다고 한다. 즉, 같은 글(대화)의 주장이나 주제라 하더라도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그 표현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한편 Tannen(1994)에 따르면,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관계를 권력(power)과 유대감(solidarity)으로 표현하고 있다. 권력(power)은 화자와 청자 사이의 수직적 관계(가정 내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관계, 혹은 회사에서는 상사와 부하직원 간의 관계

의 경우 아주 두드러진다. 다음 한 일간지의 사설을 보면 이러한 현상이 아주 잘 드러나 있다.

[사설] 유동성 쓰나미의 후폭풍 ... 정부에 위기감 있다²⁶⁾

각자가 최선을 다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건 경제학의 오랜 가르침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모두 다 자기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사회는 과국으로 빠지는 경우다. 요즘 세계경제 모습이 딱 이렇다. 유럽, 미국, 일본이 이달 들어 차례로 확대 통화정책을 발표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6일 재정위기국의 단기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고 했고, 13일엔 미국 연준(Fed)이 주택저당증권(MBS)을 매달 400억 달러(45조원)씩 매입하겠다는 3차 양적 완화(QE3) 정책을 내놓았다. 이어 19일엔 일본이 국채 매입한도를 10조 엔(150조원)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 (중략) ...

정부는 이런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위기감을 갖고 양적 완화가 몰고 올 태풍을 제대로 챙겨야 함은 물론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다. 특히 밀물처럼 밀려들었던 외자가 한꺼번에 빠져나갈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물론 과거에 비해 외환 방패가 많이 두터워지긴 했다. 그렇더라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들보다 더 강화된 선제적 대응책이 절실하다. 기업 여건 개선과 신성장동력 확보 역시 후폭풍을 이겨낼 대비책임에 틀림없다.

를 뜻함)를 나타낸다. 이를 Tannen은 비대칭적 관계(asymmetrical relationship) 이라고 말한다. 유대감(solidarity)은 반면에 대칭적 관계, 수평적 관계(symmetrical relationship)를 표현한다. 예를 들면 친구간의 관계를 말한다.

26) 이 글은 [중앙일보]의 2012년 9월 22(토)일의 사설임.

위 사실²⁷⁾을 보면 전형적인 한국어의 나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곱 개 단락 중에서 마지막 단락에서만 자기주장을 그것도 아주 미약하게 하고 있다. 앞부분의 90% 이상이 현상을 설명하는 자질구래한 것들이다. 결국 이 사실의 주장은 제일 마지막 문단의 밑줄 친 부분이다. 한마디로 하면 “외국 돈이 한국 금융시장에서 갑자기 빠져나갈 때를 잘 준비하자”이다. 즉, 전형적인 한국어 구조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절대로 자기주장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는다. 사실 한국 금융 시장을 외국 자본의 유입 혹은 유출에 대비해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기 제안을 해야 하는데 위 사실의 글쓰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기가 제시한 방법들이 독자들이나 정부가 좋아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러 감추고 “잘 준비 합시다”로 사실을 끝맺고 있다.

첨부2에 있는 영어 사실²⁸⁾을 보면 신문의 자기주장이 분명하며 자기주장을 여러 번에 걸쳐 표현하고 있다. 현상 설명도 하고 있지만 사실의 본연의 임무인 신문의 입장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위 밑줄 부분들이 사실의 주장인데 ‘need to(must)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고 있다. 그럴 뿐 아니라 한국어 사실에 비해서 비교적 앞부분에서부터 주장을 표현하고 있다. 일곱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글에서 두 번째 단락부터(Mr Romney urgently needs to get a grip on his campaign) 바로 자기주장을 쓰고 있다.

한국 문화에서는 자기주장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든가 대화(글도 역시 마찬가지로)의 서두에 끼집어내는 것은 무례하다고 여겨진다. 즉, 담화 구조(문장)에서 주제(머리어)의 위치는 한국 문화(겸양의 관점에서)에서 중요하다. 영어의 경우²⁹⁾에도 자기주장이 상대방에게 기분을 언짢게 할 것 같으면 가급적 나중³⁰⁾

27) 첨부1에 사실 전문을 실었음.

28) 이 사실은 영국 경제지 Financial Times (September 24, 2012)에서 온 것이다.

29) 각 언어마다 겸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화용론적 논의는 Brown and Levinson (1978)를 보라.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겸양의 표현이 통사적으로 나타는 현상에만 국한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30) Brown and Levinson (1990)에 따르면, 화자와 청자 사이에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이 사회적 거리가 멀면 멀수록 겸양의 기능이 명확성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담화의 구조에서 보자면 사회적 거리가 멀면 멀수록 설명이 담화의 서두에 나오면서 그 설명이 길어지고 주제(topic, 주장)

에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럼 겸양의 기능을 훼손하면서 왜 영어³¹⁾에서는 담화의 서두에 자기주장을 표현할까? 이는 다른 담화의 기능, 즉 명확성(explicitness)의 기능이 영어권에서는 겸양의 기능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담화에는 담화의 내용을 명확하게 화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다. 또한 동시에 그 내용을 전달하는데 화자에게 기분 나쁘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기분 나쁘게 전달하면 전달의 목적이 훼손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담화의 기능(function) 중 '명확성'과 '겸양'이 있는데, 이 둘이 서로 충돌하지 않게 잘 조정하면서 대화(담화)를 끌고 나가야 한다. 명확성을 앞세우면 담화가 딱딱해지고 화자나 독자가 기분이 상할 수 있다. 반면에 너무 겸양을 내세우면 글이 무슨 말 하는지 주제가 모호해지고 중언부언 하는 말(글)이 될 수 있다.

영어권 나라들은 겸양보다는 명확성³²⁾을 우선하는 문화이고, 동양(한국) 언어권 나라들은 겸양을 명확성보다 우선하는 문화이다. 문장이나 담화 내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기능(혹은 격률)들이 있는데 이들 간에는 우선순위가 있다³³⁾. 다시 말하면 담화(글)의 구조가 담당하는 것(기능) 중 하

가 담화 끝에 나온다. 반면에 사회적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주제(주장)가 일찍 나오는 경향이 있다. 겸양의 표현 방식은 언어 마다 다양하고 같은 언어라도 그 표현 방식이 아주 다양하다. 필자는 그 표현 방식 중 하나가 담화내의 주제(주장)의 위치라고 본다. 즉, 주제가 담화의 서두에 일찍 나올수록 겸양 표현이 보다 덜 중시 여겨지는 경우이고, 나중에 나올수록 예의를 차리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31) 영어에서는 겸양의 표현 방법을 담화나 대화 내의 주장(주제)의 위치를 이용하는 것 보다는 문장의 표현 형태를 이용하는 경향이 한국어 보다는 강한 것 같다. 예를 들면, 'Close the door, please!'의 표현 보다는 'Would you mind closing the door?'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겸양의 정도를 높이는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을 indirect speech act라 한다(Mey, 2001).

32) Sperber and Wilson (1995)에 따르면 대화나 글(담화)을 사용할 때 경제의 원리(Principle of Economy)를 따라야한다는 것이다. 최소의 노력(with least possible effort)으로 최대의 효과(maximum effect)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대화나 담화의 최대효과를 명확성에 두면 겸양의 격률은 희생되어야 한다. 영어의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데 무표적인 경우 반드시 글이나 담화는 명확성을 우선해야 한다. 반면에 대화나 담화의 궁극적 목표(효과)가 인간관계에 있다면 겸양이 명확성 위에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어에서처럼 겸양을 우선으로 글을 구성해야 한다.

33) 무표적인 경우에는 한국어에서는 겸양이 명확성을 우선하고 영어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겸양을 우선한다. 물론 영어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겸양이 명확성보다 우선하고 한국어의 경우에도 겸양보다 명확성이 우선하는 때가 분명 존재한다.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무표적(unmarked)인 경우를 말한다. 어디에서나 유표적

나가 그 언어권에서 존재하는 겸양이나 명확성의 표현인데, 한국어에서는 겸양의 기능이 더 중시 여겨지고, 이러한 겸양의 기능이 한국어의 경우 담화 구조에 뿐만 아니라 통사적으로 문장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이 주어 생략이나 관계절 내의 머리어의 위치에 의해 표현되고 있음을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즉, 관계절 안에서 머리어(head noun)가 한국어의 경우 관계절 끝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겸양의 표현을 반영하는 구조라고 본다. 즉, 이러한 어순이 문화구조의 한 기능을 표현하고 있다고 본다. 영어의 경우에는 겸양의 기능보다는 명확성의 기능을 우선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글의 주제에 해당하는 머리어 명사(head noun)가 설명 관계절 앞에 나타난다.

IV. 결론

글쓰기에서 담화(글)의 구조는 글쓴이의 언어가 속한 문화 구조 혹은 의식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고 대조 수사학에서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글쓴이(화자)의 문화 구조나 의식구조가 담화 뿐 아니라 문장 속에도 통사론적으로 들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어의 경우 주어생략을 통해서 직접적 방식보다는 우회적 방식으로 글쓴이의 의도나 문장 혹은 담화의 주제를 모호하게 전달한다. 한국어의 관계절 경우도 역시 선행사가 관계절 뒤에 배치되어 문장의 주제가 나중에 제시된다. 또한 대부분의 한국어 관계절 내 선행사를 수식하는 관사는 관계절 앞 보다는 관계절 다음에 위치한다. 이는 선행사의 아이덴티티 확인을 가급적 뒤로 미루는 한국어 담화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관사의 위치를 관계절 뒤에 배치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는 글쓴이의 의도나 주장을 간접적으로 (나선형 방식) 보여주고자 하는 한국어의 담화 구조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어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남을 보았다. 영어의 경우 머리처음(head-first) 언어이기 때문에 관계절의 구조에서도 머리어(head)가 수식하는 관계절보다 먼저 나오지만, 머리나중(head-last)인 한국어의 경우 머리어(head)가 관계절 다음에 나오므로써 일반적 어순의 현상과 잘

(marked) 경우는 존재한다.

맞아떨어진다. 이는 문화적 담화적 구조가 통사적 현상에도 잘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 또한 담화의 기능 중 명확성을 우선 할 것인지 아니면 겸양의 기능을 우선 할 것인지는 각 언어의 문화 구조에 달려 있다. 한국어의 문화 구조는 겸양을 우선하고 영어의 경우는 명확성을 우선한다. 따라서 문장의 담화 구조 뿐 아니라 통사 구조 즉, 문장의 구조 안에서도 그 현상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첨부1] 유동성 쓰나미의 후폭풍 ... 정부에 위기감 있다

각자가 최선을 다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건 경제학의 오랜 가르침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모두 다 자기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사회는 파국으로 빠지는 경우다. 요즘 세계경제 모습이 딱 이렇다. 유럽, 미국, 일본이 이달 들어 차례로 확대 통화정책을 발표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6일 재정위기국의 단기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고 했고, 13일엔 미국 연준(Fed)이 주택저당증권(MBS)을 매달 400억 달러(45조원)씩 매입하겠다는 3차 양적 완화(QE3) 정책을 내놓았다. 이어 19일엔 일본이 국채 매입한도를 10조 엔(150조원)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세계 주요 3대 경제권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모두 자국 경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유럽은 지난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함으로써 사실상 더블딥(이중 불황)에 빠졌고, 미국과 일본 역시 여전히 경기침체 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려면 확대 통화정책과 팽창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 하지만 3대 경제권 모두 막대한 재정적자로 재정정책을 쓸 여지는 거의 없고, 남은 건 양적 완화뿐이다.

문제는 세계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후폭풍이다. 어마어마한 돈이 풀리면 나머지 경제권, 특히 신흥국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돈이 밀물처럼 밀려들면서 주식과 채권 등 신흥국의 금융시장이 급격히 불안정해진다. 외환시장 변동성도 높아지면서 외환위기 가능성도 높아진다. 돈이 몰려들 때는 신흥국 통화가치가 급등하지만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는 급락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헤지펀드가 농간을 부릴 가능성도 높다.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실물시장도 영향을 받는다. 신흥국 통화가치가 올라가면 수출 경쟁력이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3대 경제권의 확대 통화정책이 나오자마자 신통화전쟁, 환율전쟁 등의 말이 쏟아지는 건 그래서다. 중국과 브라질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브라질 재무장관은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는 개도국 수출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이라며 “수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환율 방어에 나서겠다”고 했다. 중국은 “무책임한 조치”라며 맹비난했다. 일본이 양적 완화 정책을 편 배경도 엔고(高) 때문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미국이 양적 완화 조치를 하자마자 달러당 77엔까지 급등했던 엔화가 일본의 양적 완화로 79엔대로 떨어졌다. 양적 완화 조치가 최근 고조되고 있는 신(新)보호주의 물결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신통화전쟁, 환율전쟁, 신보호주의 경향은 가뜰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미칠 게 자명하다. 우리 경제는 올해 성장률 2%대조차 의심받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다. 기업들은 속속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고, 소비심리는 사상 최악으로 불릴 만큼 꽁꽁 얼어붙었다. 투자, 생산, 소비가 동시다발적으로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원화 값이 급등하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경제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정부의 대응 능력이다. 경각심을 갖고 여하히 대응하느냐에 따라 외부 충격의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다. 특히 시장에서는 정부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 정부에 위기감이 없다는 지적이다. 태풍은 거대한 소용돌이를 동반한 채 다가오고 있는데 위기를 대하는 모습은 한가한 듯 보인다는 얘기도 있다. 신용등급이 상향됐고, 국가부도 위험이 일본보다 낮아졌다고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환호하는 정부의 자세가 그렇게 비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이런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위기감을 갖고 양적 완화가 몰고 올 태풍을 제대로 챙겨야 함은 물론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다. 특히 밀물처럼 밀려들었던 외자가 한꺼번에 빠져나갈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물론 과거에 비해 외환 방패가 많이 두터워지긴 했다. 그렇더라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들보다 더 강화된 선제적 대응책이 절실하다. 기업 여건 개선과 신성장동력 확보 역시 후폭풍을 이겨낼 대비책임에 틀림없다.

[첨부2] [Editorial] Faltering Romney

A week is a long time in politics, which means six weeks ought to be enough for Mitt Romney, Republican presidential nominee, to revive his prospects.

At the moment his campaign is in a downward spiral. Having been tied for six months, the race has moved in Barack Obama's favour since the conventions and almost every step Mr Romney has taken - including the latest personal tax disclosure - has boomeranged. With the first of three debates just a week away, Mr Romney urgently needs to get a grip on his campaign.

Any viable Romney reboot would need to begin and end with a credible story about how he would lead the US into a strong recovery. Having held a poll lead over Mr Obama on the economy - if nothing else - for most of the campaign, Mr Romney has now ceded even that. The Republican nominee can survive a defeat in the likeability ratings - he is never going to emulate Mr Obama's ease on television shows such as David Letterman's. But he has no hope of winning in November if he loses the economic argument.

Much like the US economy itself, Mr Romney's plans suffer from poor visibility. He must offer clarity, focus and a bold choice. On the first, Mr Romney again last weekend ducked the chance to spell out whether he would pay for his broad tax cuts with higher deficits or draconian spending cuts. "The devil is in the detail," he said. He needs to get his answer straight before the first debate.

Second, Mr Romney must stick to the subject. Earlier this month he made an ill-judged attack on Mr Obama's handling of the violence in the Middle East. Mr Romney will never win by out-hawking the president on national security. Nor will he win by talking about social issues. This election will be won or lost on the economy.

Finally, Mr Romney must offer a far bolder alternative than he has so far. There was hope he may have chosen that path with his selection of Paul Ryan as his running mate in August. Since then, however, he has scrambled to reassure voters that he does not embrace Mr Ryan's plans to rein in entitlement costs.

Voters know that runaway healthcare costs are the chief cause of America's growing debt problem. Unfortunately, Mr Romney has chosen to muddy that message. The Republican nominee needs to work out what he wants to say on the economy and then keep saying it. It is alarming at this late stage of the race that he has still failed to do so.

인 용 문 헌

- 임숙현. (2005). '창피하지 않은 나, 사람, 그리고 세상.' 『국어 시간에 수필 읽기』 윤영선 엮음, 나라말.
- 중앙일보 사설. (2012). '유동성 쓰나미 후폭풍 ...정부에 위기감 있나?' (2012년 9월 22일)
- Financial Times Editorial. (2012). 'Faltering Romney'. (September 24, 2012)
- High School English II, *자습서*, (2008). 중앙교육 진흥 연구소. p. 28.
- Borer, H. (1986). "I-subject," *Linguistic Inquiry* 17-3:375-416.
- Bowers, S. J. (1974). On restrictive and non-restrictive relative clauses, Ms., Cornell University.
- Brown, P., and S. Levinson. (1978).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politeness phenomena. In Goody, E.M. (1978), *Questions and Politeness: Strategies in Social Inter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wn, P., and S. Levinson. (1990).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oi, Y. S. (1988). A reanalysis of quantifier floating in Korean. *Linguistic Journal of Korea* 13, 109-147.
- Connor, U. (1996). *Contrastive rhetoric: Cross-cultural aspects of second language writing*.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nnor, U. (2002). Contrastive rhetoric and academic writing: Multiple texts, multiple identities. Forum: *Applied Linguistics Newsletter*, 23(1), 1, 6.
- Eggington, W. G. (1987). Written academic discourse in Korean: Implications for effective communication. In U. Connor & R. Kaplan (Eds.), *Writing across L2 languages: Analysis of L2 text* (pp.

- 153–168). Reading, MA: Addison–Wesley Pub.
- Eggins, S. (2004). *An Introduction to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2nd ed.)*. London/New York: Continuum.
- Fforde, J. (2009). *SHADES OF GREY*. Penguin Books Ltd.
- Givon, T. (1979). *On Understanding Grammar*. New York: Academic Press.
- Goffman, Erving. (1956).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 day life*. Edinburgh: University of Edinburgh Press.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and J.L.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Vol. 3. Speech acts (pp.41–58)*. New York: Academic Press.
- Halliday, M.A. K. (199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2nd ed. (rev.))*. London Edward Arnold.
- Hooper, P.J., and Traugott, E.C. (2003). *Grammaticalization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ang, C–T. (1984). "On the distribution and Reference of Empty Pronoun," *Linguistic Inquiry* 15:531–74.
- Johnstone, Barbara. (2008). *Discourse Analysis*. Oxford: Blackwell Publishing.
- Kaplan, R. B. (1966). Cultural thought patterns in inter–cultural education. *Language Learning*, 16, 1–20.
- Kim, Young Kook. (1997). *Movement and Feature–Checking in Korean: Relative Clauses, Topicalization, and Case–marking*. Ph.D. dissertation, University College London.
- Lakoff, R. (1973). The logic of politeness, or minding your p's and q's. In C. Corum, T.C. Smith–Stark, and A. Wiser (eds.), *Proceedings of the Nin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Chicago: Chicago Linguistic Society, pp. 292–305.
- Leki, I. (2000). Writing, literacy, and applied linguistics.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20. 99–115.

- Mey, L. Jacob. (2001). *Pragmatics: An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Publishing.
- Parker, F., and K. Riley. (2005). *Linguistics for Non-linguists. A Primer with Exercises*. Pearson Allyn and Bacon; New York.
- Pike, K. L. (1967). *Language in Relation to a Unified Theory of the Structure of Human Behavior*. The Hague: Mouton.
- Radford, Andrew. (2009). *Transformational Grammar(A First Cour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73-8, 350, 368, 382, 504.
- Raimes, A. (1998). Teaching writing.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8, 142-167.
- Renkema, J. (2004). *Introduction to Discourse Studies*.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Rizzi, L. (1986). "Null Objects in Italian and the Theory of pro," *Linguistic Inquiry* 17: 501-557.
- Sapir, E. (1949). Selected writings of Edward Sapir in language, culture, and personal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perber, Dan, and Wilson, Deirdre. (1995).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2nd ed.)*. Oxford: Blackwell.
- Tannen, D. (1994). *Gender and Discours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hompson, G. (1996). *Introducing Functional Grammar*. London: Edward Arnold.
- Von Humboldt, W. (1836). *Über die Verschiedenheit des menschlichen Sprachbaues und ihren Einfluss auf die geistige Entwicklung des Menschengeschlechts (Bd. 7)*. [On the variety of human language construction and its influence on the mental development of mankind (vol. 7)]. Berlin: Königli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Abstract

**Inter-relationship between sentence structure
(word order) and cultural structure : A case study in
Korean and English.**

Kim, Young Kook

Kaplan (1966) introduced the idea of contrastive rhetoric, or the comparison of different types of writing in terms of organizational pattern. He claims that each language and each culture has a paragraph order unique to itself. In other words, the type of a writing is influenced by the cultural structure where the writer belongs to. Generally speaking, the writing conventions of a language may in some ways define a culture. The Korean language is affected in terms of the structure and pattern of the discourse by its culture and the structure of consciousness of the its community. According to him, English is depicted through a straight line from one point to another point, and oriental languages such as Korean and Japanese are through a spiral. In this paper, along with Kaplan, I will show that the phenomena such as pro-drop in a sentence and the word order in relative clauses reflect the idea that Korean has a spiral structure; the Korean speaker(writer) speaks his(her) intention indirectly and at the end of a sentence or a paragraph (discourse) rather than directly and in the beginning of a sentence or discourse.; in the case of Korean, the deletion or position of determiner, the position of relative clauses, and pro-drop phenomenon show a spiral structure in Korean, compared with English counterparts.

Key words: contrastive rhetoric, spiral structure, pro-drop language, relative clauses

대조 수사학, 나선형 구조, 주어 생략 언어, 관계절, 담화구조

논문접수일: 2012. 11. 12

심사완료일: 2012. 12. 10

게재확정일: 2012. 12. 15

이름: 김영국

소속: LSI 영어연구소

주소: 156-801 서울 특별시 동작구 노량진1동 151-10

이메일: kimykook@hanmail.net

